

대중사업을 먼저 규정하는 일이 필요할 듯. 그리고 범주를 정했으면 한다.
일상 사업이 잘되었다. (복지와 맞물려)
대중사업을 하면 통크게 제안하고 단위 발동까지.

(문여 평가) 기본적인 것부터 많이 놓치고 있었다. 선전작업부터 단위를 발동하는 것까지. 통크게 사업하지 못했다.
창발적인 노력 있었다.

1. 대중사업 - 구체적인 사업 사업 별로 할 필요는 없을 듯 싶구요, 하나의 맥으로 대체적인 어려움이
나, 계승해야 할 우리 자주경희 여학생회의 대중사업 작풍을 생각해오세요

대표자들이 실무에 많이 치이게 된다.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총여 내에 일꾼이 적은 탓도 있겠지만
단위 발동도 어려웠던 점이 있다. 그리고 대중사업 판이 지나치게 학우들의 구미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 판 하나를 간결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계승해야 할 자주경희 여학생회의 대중사업 작풍이라면 총학생회나 다른 단위에 비해
서 총여 위상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펼친다는 것과 참신하다는 것(창발성이 있다), 학우들의 요구를
고민하고 준비한다는 것.(구체적으로 말하려니 표현하기 힘들군요)

2. 조직사업 -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단위의 실질적 성과와 아쉬움

(여) 부재.
로 친구들을
내 것 외에는
다
상적인 만남.

조직사업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함. 재생산구조를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의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고민할 정도로 성장하게 했다는 것은
지속적인 애정과 조직 사업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보다 사람이 많이 보인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쉬움은 사람이 많이 보이는 만큼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 활동
이 뒷받침되지 못했다.(우리가 그동안 나눈 이야기 이상의 평가는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3. 연대 투쟁 - 연대회의... 농활, 기활 평가 (간단하게!)

여성농민회와 지속적인 연대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기 어렵군요. 남원시 여성농민회 건설을 위한 지
도사업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농활대를 교양하고 지도하는 사업은 후속사업이 없어
서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지만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농민반 주체를 세워야
한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기활은 원칙에 맞게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

연대 회의와의 사업이나 연계는 지속적인 중환자 없어서 잘 모르겠다.

4. 자주 경희에서의 총여학생회가 가진 (여)학우 장악력 / (여)학생회 장악력

- 평가와 더불어, 내년에 부족한 지점이나 계승할 지점이 있으면 생각해오세요...

장악력은 한마디로 크다고 생각. 학우들이 총여학생회가 존재하는 것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은
총여학생회가 혁신해야할 지점도 존재하지만 자주경희 내에서는 그만큼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뜻이
도 한 것 같다. 학생회 장악력은 그리 크지 못한 것 같다.

일꾼 혁신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지점인 동시에 계승할 지점이라고 생각.

일꾼들의 성장 파악을 한번 해보자. 수월하라는 경향이 커서 장악력을 높이기 쉽지 않을가라는 생각이 든다.
여학생회 사업이 왜 전달되어도 수행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 다음 대 정/부 역할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정 : 학내 여성주의자들(여학생회, 여성부, 여성학 소모임 뿐만 아니라 건설 고민중인 여성주의자 공동
체까지)을 묶을 수 있는 사람 사업. 총학생회와의 실질적인 소통. 연대활동에 있어서의 대표자. 단위
대표자들을 만날 사람. (→ 단위의 중환)

부 : 총여 두리로 묶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한 사람 사업(학습 포함)과 조

직사업. 여성 운동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는 연구 사업.

* 대표자를 결의하는 후보자로서, 자신이 내년에 맡을 정/부 역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나서는 혁신 지점이나, 계승할 지점들 정리해오기~!

3년째 대표자를 결의하다보니 관성화가 된 듯. 관성적인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혁신과제.

대표자에게 중요한 생활력을 키워내는 것이 두 번째 혁신과제.

학습을 더 하는 것과 내 시간을 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세 번째 혁신과제.

대인 관계에 익숙해지는 것이 네 번째 혁신과제.

계승할 점들...상반기를 살면서 얻은 교훈들을 잘 살리는 것. 나 한사람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주체의 단 한 번뿐인 지금 현재의 삶이 소유되느냐 소비되느냐가 바뀌고 내 동지들이 힘받고 기쁘게 사느냐 상처받고 지치느냐가 바뀐다는 생각을 하게 됨.